

- 주요 뉴스: 7월 FOMC 의사록, 다수의 위원들은 9월 금리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
 - 미국의 지난 1년 일자리 증가, 82만건 하향 조정.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를 강화
 - ECB 파네타 위원, 향후 금리하락 예상이 합리적.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로이터 설문조사, 일본은행은 연말에 추가 금리인상 시행할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9월 금리인하 기대 고조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주가 상승[+0.4%], 달러화 약세[-0.3%],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7월 FOMC 의사록이 비둘기파적이라는 평가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자동차 관련주 강세 등으로 0.3%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노동시장이 기존 인식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 등으로 하락
유로화 가치는 0.2% 상승, 엔화 가치는 강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통화정책 완화 기대, 고용 둔화 가능성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2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34.4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37.0원, 0.16% 상승). 한국 CDS 강보합

		8/21일	8/20일	전일대비			8/21일	8/2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620.9	5,597.1	+0.42%	국채 금리 10y	미국	3.80%	3.81%	-1bp
	유럽	513.95	512.27	+0.33%		독일	2.19%	2.22%	-2bp
	중국	2,856.6	2,866.7	-0.35%		영국	3.89%	3.92%	-2bp
	일본	37,952	38,063	-0.29%	CDS 5y	한국	34bp	34bp	+0bp
	한국	2,701.1	2,696.6	+0.17%		중국	61bp	60bp	+1bp
환율	달러지수	101.18	101.44	-0.26%	위험 지표	EMBI+	-	408	-
	유로화	1.1150	1.1130	+0.18%		VIX	16.27	15.88	+2.46%
	엔화	145.21	145.26	+0.03%		WTI유	74.04	74.37	-0.44%
	위안화	7.1314	7.1293	-0.03%	원자재	구리	419.0	415.9	+0.76%
	원화	1,334.8	1,332.5	-0.17%		금	2,512.6	2,514.0	-0.0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7월 FOMC 의사록, 다수의 위원들은 9월 금리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

-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가 지속되는 반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 이에 이러한 경제지표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9월에 0.25%p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 일부는 7월에도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언급
- 이번 결과는 위원들이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이라는 2가지 책무와 관련된 위험을 동등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아울러 다수의 위원들은 최대고용 관련 위험이 크게 증가한 반면 물가안정 관련 위험은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 일부 위원은 노동시장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피력
- 일부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연준이 9월에 0.25%p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이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작은 조치에 불과할 수 있지만, 향후 연착륙 달성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분석
- 연준이 예방적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거론될 수 있으며, 노동시장 악화 위험이 커진다면 연준은 0.50%p 금리인하를 시행할 필요(JPMorgan). 한편 CME의 FedWatch Tool은 연말까지 금리인하 폭이 1.00%p(9월 0.25%p, 11월 0.50%p, 12월 0.25%p)에 이를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의 지난 1년 일자리 증가, 82만건 하향 조정.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를 강화

- 노동부에 따르면, '23년 4월~'24년 3월 기간 비농업부문 일자리가 당초 290만개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지만, 실제 결과는 이보다 81.8만개 적은 수준. 이번 감소폭은 15년래 최고치. 월평균 일자리 증가폭도 하향 조정(24.6만개 →17.7만개)
- 이번 발표로 고용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연준이 향후 금리인하를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 미국 주간 모기지 신청건수, 2월 이후 최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수요 약화

- 지난 주 주간 모기지 신청건수는 전주 대비 5.2% 감소. 모기지 금리 하락에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신청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

- ECB 파네타 위원, 향후 금리하락 예상이 합리적.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인 파네타 위원은 통화정책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ECB가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
- 중국 금융당국, 상업은행의 순이익 증가율은 대출금리 하락으로 둔화될 우려
 - 금융감독위원회의 리오 유안유안 통계 및 위험감독국 국장은 상업은행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대출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도 은행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
- 중국, EU 유제품에 반보조금 조사. EU의 자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계획 항의 목적
 - 상무부는 EU에서 수입된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착수. 이는 EU의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추진에 대한 반발로 해석. 일부에서는 양측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분석
- 로이터 설문조사, 일본은행은 연말에 추가 금리인상 시행할 가능성
 - 이코노미스트 대상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는 일본은행이 연말에 다시 한 번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 현재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은 과도하게 완화적이며, 이에 향후 점진적으로 금리를 높일 전망(Itochu Research Institute)
 -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가토 전 관방장관도 오랫동안 정책금리가 고정되어 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제는 점진적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
- 일본 7월 수출, 엔화 약세 등으로 전월비 10% 증가.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0.3% 늘었고, 이는 반도체 및 자동차 부문 호조에 기인. 전월비 기준으로는 5.4% 증가. 다만 수입도 전년동월비 16.6%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6218억엔 적자를 기록. 6월 흑자를 나타냈던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8/2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잭슨홀 심포지엄 시작(24일 종료), 8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 미국 8월 S&P 글로벌 종합 PMI, 유로존 8월 HCOB 종합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국채가격의 변동성 확대, 경제 예측력을 상실할 우려 - Financial Times

(Whatever happened to the wisdom of the bond market?)

- 전통적으로 국채가격은 안정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자산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투기성 자산과 같이 변동성이 확대. 특히 예상보다 부진한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국채금리가 급락.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된다는 인식 때문
- 또한 시장구조의 변화, 알고리즘 기반 펀드 및 투기성 펀드의 영향력 증가, '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충격 흡수 능력 약화 등도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에 영향. 향후 이러한 현상이 이어진다면 채권시장이 제시하는 경제 및 통화정책 예측 지표로서의 신뢰도 또한 감소할 소지

■ 미국의 주택 구매력, 금리하락·임금상승 등으로 점진적 회복 예상 - 블룸버그

(Homes Will Be Affordable Again - Just Not Anytime Soon)

- 미국의 주택 구매력은 상당 기간 저금리 여건에서 매우 양호했지만, 최근에는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침체기에 진입. 특히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기존의 낮은 모기지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거래 의지가 부족
- 하지만, 선물시장에 반영된 '25년 금리수준은 3% 초반이며, 모기지 금리도 5.0~5.5%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 아울러 임금 성장률은 3.5%, 주택가격 상승률은 2%를 예상. 이에 정부의 신규주택 보급 확대와 인센티브 지급 의지가 현실화된다면 주택 구매력은 매년 향상될 것으로 판단. 다만, 이는 점진적 형태로 전개될 전망

■ 일본 증시, 8월초 주가 급락에도 외국인의 현물 매수 지속은 시장 신뢰를 반영 - 블룸버그

(Sticky Money Stays in Japan Stocks While Short-Term Players Exit)

- 8월 첫째 주 일본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현·선물 합산 7,770억엔의 대규모 매도를 단행. 하지만, 매도는 대부분 선물시장에서 발생했고, 현물시장에서는 오히려 5,000억엔의 순매수 기록. 이는 단기 투자자들이 일본은행 금리인상과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선물매도에 집중한 반면,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은 매수로 대응한 결과
- 주가 급락 속에 현물 매수 자금 유입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 현물 보유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는 일본연금펀드(GPIF)의 저가매수 유입, 일부 투자자들의 주가 급락에 따른 선취매 등도 최근 주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 **경제개방도가 높은 국가, 싱가포르의 관리변동환율제 참고할 필요 - Financial Times**

(Time to rethink exchange rate orthodoxy for open economies)

- 기존 환율제도는 고정 혹은 변동환율제에 초점을 맞춰 조성되었고,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현실에 비해 너무 단순하다는 문제에 직면. 반면 경제개방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 관리변동환율제는 고정환율제와 자유변동환율제의 중간 형태로, 환율을 통화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특성이 내재
- 싱가포르가 관리변동환율제를 선택한 이유는 통화가치의 상승 혹은 하락 속도를 조절하여 보다 많은 거시경제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 개방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인플레이션, 산출량, 생활수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싱가포르는 장기간 저물가 여건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구가
- 모든 국가에 적합한 1개의 환율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환율을 정책 도구로 사용하는 싱가포르 모델은 세계 통합에 따른 이점과 국내경제 안정의 혜택을 얻으려는 국가에게 참고할만한 예시

■ **미국의 강력한 對중국러시아 제재,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될 가능성 - WSJ**

(Tough U.S. Sanctions Packages Are Here to Stay—Whether It's Harris or Trump)

■ **잭슨홀 심포지엄, 통화정책 전환 지연 영향 등을 논의할 필요 - Financial Times**

(Lessons from the hard-fought battle against inf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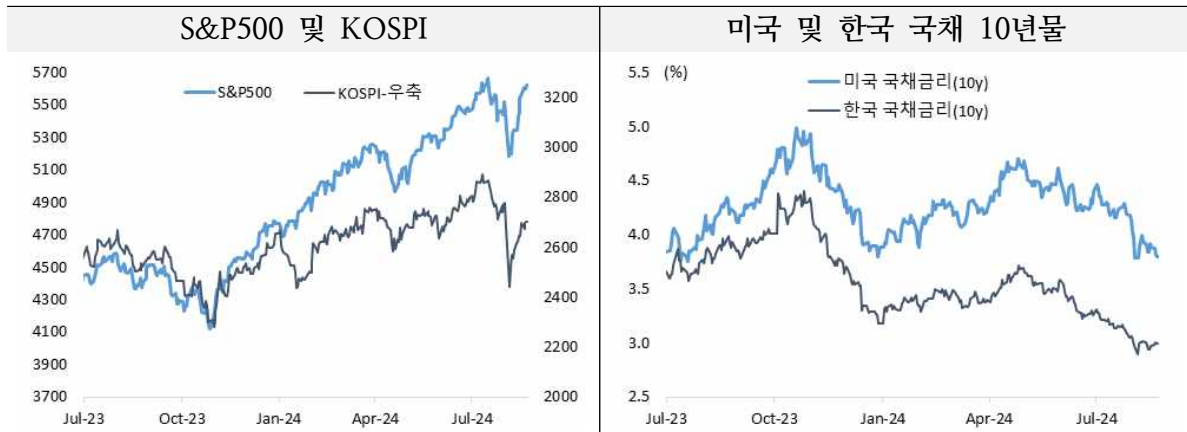
■ **금 가격 상승세, 달러화 약세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당분간 이어질 전망 - Financial Times**

(Gold goes for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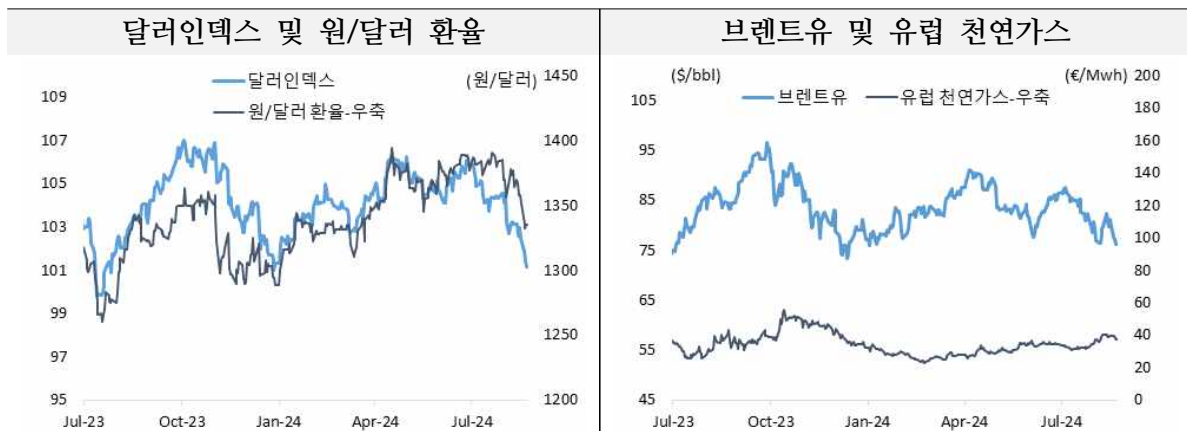
■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여타의 다양한 경제 문제 야기할 소지 - 블룸버그**

(The New Consensus on Trade Is Wrong and Danger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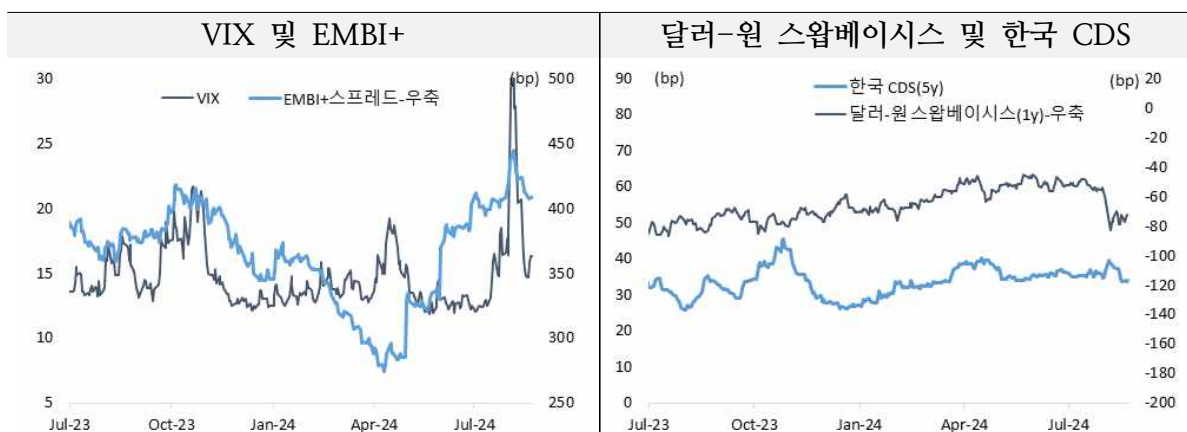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